

## 31주 허영의 시장 (2)

순례자들은 반드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한다.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신앙고백에 감대했으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두 순례자는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그들이 시장으로 들어가자 시장의 모든 사람이 동요했다. 도시 전체가 그들에 대해서 왁자지껄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달랐다.<sup>1</sup>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멍청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미치광이, 또 다른 이들은 촌스러운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둘째, 사람들은 순례자의 의복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이상하게 생각했다.<sup>2</sup> 순례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은 가난한 말을 사용했으나, 시장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야만인으로 보았다.

셋째, 상인들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상품을 경시했고, 상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부르면, 순례자들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시 119:37)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늘에서의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써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빌 3:19-20).<sup>3</sup>

한 상인이 조롱하면서 순례자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두 순례자는 그자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잠 23:23)라고 대답했다.<sup>4</sup> 그러자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더 멀리했다. 어떤 이는 순례자들을 조롱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꾸짖었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때리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소동이 일어났고, 시장은 크게 시끄러워졌으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드디어 시장 주인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몇 명을 파견해서 누가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두 순례자는 조사받기 위해 끌려갔고, 그들 앞에 있는 조사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이상한 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낯선 이방인이고, 천성의 예루살렘이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히 11:13-16).<sup>5</sup>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에게나 상인들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욕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해 달라고 말했으며, 다만 어떤 이가 무엇을 사려느냐고 물었을 때 진리를 사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순례자를 조사하도록 지명된 자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정신병자나 미친 자여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순례자를 잡아서 때렸다. 진흙으로 순례자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을 철장에 집어넣었다. 두 순례자는 시장에

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악의와 복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장 주인은 순례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 계속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인내했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축복했고, 나쁜 말에 대해서 선한 말을 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친절로 응답했다.<sup>6</sup> 시장에 있는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편견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들도 똑같이 나쁜 자들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들도 공모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착실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례자를 핍박하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철장 속에 갇혀야 마땅하며, 시장의 상인들이 형틀에 묶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편에서 여러 말이 오간 후에, 지혜롭고 착실하게 보이려고 행동했던 자들이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싸웠고 상처를 입혔다.

불쌍한 두 순례자는 조사관들 앞으로 다시 끌려갔다. 그리고 방금 전 시장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사관들은 두 순례자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쇠고랑을 채웠으며, 쇠사슬로 묶어서 시장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누구도 순례자들을 위해 말하거나, 순례자들의 편에서 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성실은 더 지혜롭게 처신했으며,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써 받아들였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의 편에 서도록 했고 반대편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sup>7</sup> 순례자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를 죽이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소란을 피웠으며, 시장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렸기 때문에 철장이나 형틀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서 순례자들을 위협했다.

그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철장에 다시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철장에 갇혔고, 그들의 발은 대에 묶였다.

여기에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기억했다. 그리고 전도자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과 고통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순례자들은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에 자신들을 맡기었다.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sup>8</sup>



5. 순례자들이 그들을 조사하는 조사관에게 담대히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 11:13-16)

6. 두 순례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벧전 3:9) 이런 행동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7. 두 순례자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모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 89:51)

8.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벧전 5:7)